

사회

병·의원 살아남기 경쟁이...

광주 모 병원 경남 의령 의료검진 가다 승합차 추락 4명 숨져

병·의원 난립과 잇따른 휴폐업 속에 타 지역 농촌으로 원정 건강검진을 가던 광주 모 요양병원 승합차가 사고를 내, 차량에 타고 있던 의료진과 직원 등 10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7일 오전 7시11분께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79번 국도 정암교에서 광주 모 요양병원 의료진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가 다리 난간을 들이받은 후 15m 아래 남강 강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박모(49·병원직원)씨와 동승자 한모(57·사무원)씨, 김모(27·여·의사)씨, 김모(40·방사선 기사)씨 등 4명이 숨졌다. 또 간호조무사와 임상병리사 등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은 이날 오전 의령군 봉수면 죽전리 마을회관에서 예정된 건강검진을 위해 가던 중이었다.

경북경찰은 사고 차량이 환안에서 의령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 난간을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400m 교량의 중간으로, 전날 오후 내린 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빙판길로 변했다.

지역 의료계는 매년 병·의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한 병·의원들의 치열한 경쟁이 사고를 부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지역 병·의원은 2007년 1540개소에서 2012년 2월 현재 총 1781개소로 매년 3% 이상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요양병원은 광주의 경우 2007년 7개소에서 2012년 23개로 3배 이상, 전남은 9개소에서 45개소로 5배 급증했다.

이는 지역 병·의원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경영난에 시달리던 일반 병원들이 환자유치가 용이한 요양병원으로 대거 전환한 데 따른 것이며, 고

령화 추세와 맞물려 요양원들도 시설을 확충해 요양병원으로 탈바꿈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다.

이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시설을 갖춘 대형 요양병원들은 건강검진이나 의료봉사활동을 하며 병원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중소형 병원들도 놓여온 지역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는 등 불황 타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더구나 환자 확보 경쟁이 가열되면

서 병의원들의 검진 및 홍보활동이 전남은 물론 전북을 넘어 타 지역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모 병원 관계자는 “병·의원들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강 시장 부인들이 상당수’라며 ‘기본적으로 무료 검진 과정에서 장기 치료 및 요양환자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7일 오전 7시11분께 경남 의령군 의령읍 정암리 정암교에서 광주 모 요양병원 의료진을 태운 스타렉스 승합차가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한모씨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남소방본부 제공>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췌시장 부인 뭉치돈 조사

광주지검 “가족아닌 사람 입출금 정황있다”

강시장 “아내가 물려받아 혼자 관리해 온 돈”

강운태 광주시장 부인 계좌의 일부 자금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예금주와 관련자들을 불러 자금의 성격과 출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말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강 시장 부인 계좌에 의심되는 자금 흐름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아 그동안 내사자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강 시장 부인의 자금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거래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전형적인 내용’을 통보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총인재감시실 비리 사건과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검찰은 강 시장 측의 주장대로 상속이나 증여 과정에서 비롯된 돈이라도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재산신고를 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계좌에 제3자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 규모와 거래시기와 관련해서는 “민선 5기 출범 전후에 거래됐으며, 시기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끝난 뒤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장검사는 또 “강 시장의 부인인 이모씨는 조사 대상이어서 소한 여 부를 알아보고 있으며, 강 시장을 조사할지 여부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 자금에 대해 “배우자

가 분가에서 물려받은 2건의 부동산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4건의 부동산 매각자금을 종자돈으로 해서 마련된 것”이라며 “배우자가 혼자서 예금과 CD(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으로 관리해오는 바람에 최근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시장은 또 “배우자 분가로부터 오래전 유산을 일부 물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공직 기간 어느 사람으로부터 불법, 부당한 자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가성 자금, 정치자금 운운은 지극히 선동적이고 악의적이며 완전한 허구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들 언론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를 비롯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즉각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원침 (8497) 김중두



전두환 3800만원 체납 서울시, 재산정보 제공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금융권에 제공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 3800여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개별 은행에 전달하고 각 은행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 제한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신용불량 등록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의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결혼 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 등이 다.

전 전 대통령은 2003년 사저 별채를 강제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 3017만원과 미납 가산세 800여만원 등 총 38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연합뉴스

금융정보분석원서 작년 여름 포착 검찰 통보

강 시장 뭉치돈 어떻게 불거졌나

강운태 광주시장 부인 계좌에서 수십억원의 뭉치돈이 거래됐다는 사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파악해 대검찰청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나 그에 상당하는 외화, 1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보고를 받아 불법자금세탁, 외화 유출, 수상한 자금의 흐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된 기관이다.

이 기관은 지난해 상반기 강 시장의 재산등록 이후 부인 계좌에서 뭉치돈이 오간 것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합법 자금 조달 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관세 범죄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조사 등과 관련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주도록 검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은 2000만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보고식사에 따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자료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금융거래 발생한 일자 및 장소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금융거래 내용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

광주지검 강찬우 차장검사는 “광주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된 검사가 충분히 의심이 가는 거래라는 판단 아래 자료를 통보했기 때문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통보하는 기관에서 의심을 했다고 해서 모두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예금주나 거래자 등을 상대로 신속히 수사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저수지 준설 빙자 100억대 골재 도둑

전남경찰, 업자·전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 3명 영장

저수지의 담수량 확보와 수질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퇴적토 준설 공사를 빙자해 100억대 골재를 불법으로 채취한 골재채취업자와 뇌물 받은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는 7일 “골재업체 D개발의 실질적 대표 전 모(50)씨 등 2명에 대해 골재채취업 위반 및 절도 혐의로, D개발과 준설 협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 농어촌공사 지사장 강모(60)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농어촌공사 청원경찰로 근무하면서 D개발의 골재 불법채취 사실을 묵인하고 뒷돈을 받은

청원경찰 윤모(38)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및 절도방조 혐의로 불구속 검거했다.

D개발은 지난 2007년 상반기 농어촌공사 모지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일대에 퇴적토 준설 사업을 신청해 사업 인가를 받은 후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처럼 위장해 약 107만㎡의 골재를 채취한 후 약 102억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D개발의 청탁을 받고 계획에 없던 퇴적토 준설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금입찰 없이 D개발과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도 공사 발주 편의 제공 대가로 2000만원의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준설공사 현장감독을 위임받은 청원경찰 윤씨는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골재 불법 채취행위를 도와주고 27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아 청진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준설공사가 시행된 저수지는 골재가 다량으로 매장돼 있는 상류쪽에서 집중적으로 불법 채취돼 흙탕물이 저수지로 다시 방류, 물의 흐름이 막혀 심한 악취와 녹조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생겨자 강지장 삼계서 공금입찰 없이 D개발과 일방적으로 퇴적토 준설사업을 협약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뒤편에 간다” 가솔린구급품형

○...여수경찰은 7일 가솔린 구급품형 하지 않자며 친구를 모델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공공감금)로 A(15)양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A양 등은 중학교를 자퇴하고 모델 등을 전전하다 지난달 25일께 친구 B(15)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모델에 끌고 가 11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B양은 다음날인 26일 오전 A양 등이 잠든 틈을 타 탈출했으나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경찰관 멘토를 지정해 심리 안정과 폭력 예방 교육을 할 계획.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장애소녀 철창 감금 현비동산서 “교사가 장애학생 성폭행”

여성장애인상담소

최근 수년 간 장애인을 철창에 감금해 물의를 빚은 광주의 한 장애인 생활시설<광주일보 2월 2일 6면>에서 성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7일 성명을 통해 “장애인 감금과 폭력으로 시설폐쇄 권고나 내려진 광주의 지적장애인시설 현비동산에서 생활인간의 성추행, 교사들로부터 수차례 강간 및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폭력상담소는 “지난해 12월 초 문제의 현비동산에서 성교육 상담을 하던 중 지적장애 남학생들의 성폭

력문제가 오래전부터 발생했고 교사가 남학생을, 또 다른 교사는 장애여학생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성폭력 피해자가 6명의 동성들을 성추행하는 상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애인시설측은 교사의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정부와 수사기관은 장애인시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비동산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시설장 또는 교사들이 장애인을 감금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폐쇄 조치됐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화인코리아 부동산 광주고범, 경매 중지

법원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

한 화인코리아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지해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광주고법 민사2부(박병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근 화인코리아에 대한 부동산 경매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는 회생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까지 채권자의 임의 경매를 통한 화인코리아의 재산 처분을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화인코리아 측에서는 그동안 투자나 채무변제 등을 통해 법원 회생의 요건을 갖출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그러나 화인코리아 채권을 보관으로 업계 진출을 선언한 사조그룹의 반대로 법원이 회생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유현석기자 chadol@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3월2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합격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아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명품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